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동우팜투테이블(088910)

음식료/담배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NICE평가정보(주)	작성자	권혜미 선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개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팜투테이블[088910]

육계 계열화 사업을 통한 육계 산업 선도 기업, 추가 공장 구축 위한 투자협약 체결

기업정보(2020/08/25 기준)

대표자	이계창
설립일자	1993년 02월 17일
상장일자	2006년 06월 23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가금류 도축업
주요제품	도계육, 산란계

시세정보(2020/08/25 기준)

현재가(원)	3,22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33
발행주식수	25,831,764
52주 최고가(원)	5,400
52주 최저가(원)	1,955
외국인지분율	2.8%
주요주주	군산도시가스 외

■ 국내 육계 산업 선도 기업

동우팜투테이블은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종계, 부화, 사육,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육계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른닭고기’ 브랜드로 다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가와 가공 및 유통업체가 협업하여 상생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계업,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탁생산 기관을 확보하여 거래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도계 실적을 고려하면 국내 3위의 실적을 나타내었고, 계열사인 침프레 점유율을 합산할 시 국내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자동화 설비 및 체계적인 공정 관리를 통한 제품 생산

동사는 최첨단 자동 설비 시스템과 방역 시설로 종계 및 병아리를 사육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계 공정에서는 네덜란드 STORK 사의 전자동 도계 설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동 시스템 및 에어칠링(공기냉각) 적용으로 오염 확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내실 강화 및 시장 현황 변동으로 인한 매출 증대 기대

동사는 가금류 가공을 위한 추가 공장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고창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약취 저감을 위한 친환경시설을 갖춘 공장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자 하며, 650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한계를 극복하고 제품을 다각화함에 따라 추가 매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몸매관리를 위해 저지방, 고단백 식품을 찾는 식문화의 변화와 닭고기를 이용한 식품의 수요 증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량 변동 등을 동사의 매출 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개별)	2,308	(2.1)	168	7.3	175	7.6	11.1	9.4	17.0	727	6,663	5.6	0.6
2018(개별)	2,502	8.4	170	6.8	181	7.2	10.1	8.6	16.9	702	7,332	5.3	0.5
2019(연결)	2,706	-	43	1.6	26	1.0	-	-	18.3	102	7,388	35.0	0.5



기업경쟁력

육계 산업 선도하는 기업

- ‘농장에서 식탁까지’ 육계 계열화 사업으로 육계 산업 선도하는 기업
- 농가, 가공 및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 운영

다수의 계열사 확보

- 사육
 - 우농, 다농, 가농 지분 보유
- 가금류가공/사료
 - 참프레 지분 보유
 - 사료 공급 약정에 대해 연간계약 체결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자동화 설비를 통한 품질관리

- 최첨단 자동 설비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 운영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 가능
- 생산 효율 극대

적용제품



시장경쟁력

국내 주요 기업

- 국내 닭고기 시장 선도 기업
 -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등과 함께 시장 선도
 - 사육, 생산, 유통 계열화 사업 운영

국가 정책 지원

- 축산계열화사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장비, 경영시스템, 자축구입비, 사료비, 사육 경비 등에 대한 저금리/무이자 대출 지원

최근 변동사항

사업 다각화

■ 통신판매업 등록

- 2018년 6월 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하여 통신판매업 신규로 추가함

투자협약 체결

■ 전라북도, 고창군과 투자협약(MOU)

-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내 가금류 가공저장 시설 구축 위해 1,500억 원 투자 결정
- 친환경시설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계획(~2020년)



I. 기업현황

계열화 사업을 통한 육계 산업 선도 기업

동우팜투테이블은 종계의 사육부터 도계,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휘, 총괄하는 계열화 사업으로 육계, 닭고기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개요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사’)은 1993년 02월 화성식품으로 설립되어 2006년 0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도계, 산란계 사육과 닭고기 부분육, 가공품의 생산 등 육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3월 기준 61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며, 냉장/냉동 형태의 닭고기 부분육과 삼계탕, 염지육 등 닭고기 가공품을 제조하고 있다[표 1].

표 1. 기업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회사명	동우팜투테이블	창업주	김원천
설립일	1993년 02월 17일	대표이사	이계창
자본금	12,916백만원	실질경영주	김동수
발행주식 총수	25,831,764주 (자사주 110,000주)	임직원 수	610명 (2020년 03월 기준)
상장일	2006년 06월 23일 (코스닥)	계열회사	참프레, 군산도시가스, 우농 외
지식재산권	디자인(1건), 상표(36건)	브랜드	바른닭고기, 참바른닭고기 외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주요 관계회사 및 최대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군산도시가스(대표이사 윤인식)로 동사의 지분 21.6%를 보유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는 연료용 도시가스(LNG) 공급 및 취급시설의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로 최대주주인 김동수가 37.7%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2]. 김동수는 계열사인 참프레의 지분을 0.4%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는 군산도시가스(21.6%), 참프레(26.7%), 우농(90.0%), 다농(47.5%), 가농(45.0%) 등이 있다.

표 2. 주주현황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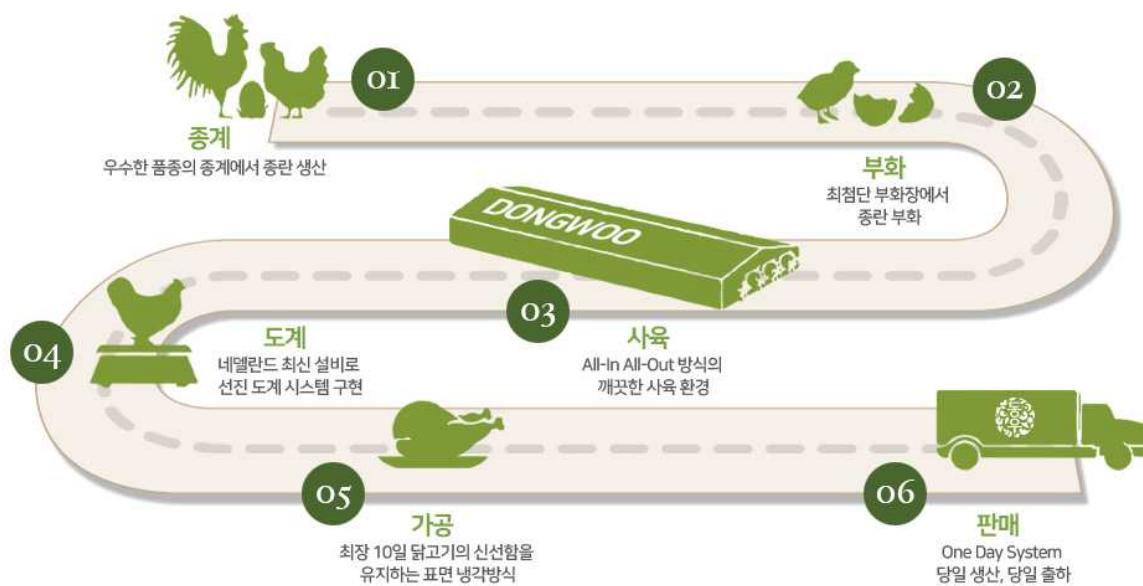
■ 주요 경영진 정보

실질경영주는 최대주주 군산도시가스의 최대주주인 김동수 회장으로,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한양대학교 경영학,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군산도시가스와 참프레 사내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군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이사 이계창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볼보건설기계 아시아-퍼시픽 본부 부사장, 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영업본부)을 역임한 뒤 2017년 3월 동사 대표이사로 부임하였다. 이외에도 기획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김종관 사내이사, 경영지원 총괄하는 김재윤 사내이사, 생산 총괄하는 김덕실 사내이사와 상근감사인 김현영 사내이사가 상근 경영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핵심역량

동사는 계열화 사업을 구축함으로써 Farm to Plate System(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과 One day System(당일 생산, 당일 출하)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을 도입하였다 [그림 1]. 동사는 사육 농가와의 위탁 사육 계약 체결을 통해 병아리, 사료, 약품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생계사육을 위탁하고, 출하 시 Kg당 위탁 사육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로써 농가에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 동사가 직접 사육관리함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다.

그림 1. 닭고기 생산과정



*출처: 동사 홈페이지



■ 주요 제품

동사는 축산물의 가공 및 제조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신선제품, 냉동제품, 친환경제품, 스페셜제품, 가공제품 군으로 생산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신선제품(통닭 백숙용, 삼계탕용 영계, 청매실 토종닭, 닭다리(북채), 가슴살 등)과 냉동제품(닭볶음용 절단육과 북채, 가슴살 등 부분육)이 각각 ‘바른 닭고기’ 브랜드와 무항생제 1등급 닭고기를 이용한 ‘참바른친환경닭고기’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과 실속구성으로 갖추어진 반마리 닭볶음용 부분육, 윙&봉 등의 미니멀 닭고기 제품이 스페셜제품에 해당하며, 가공제품은 삼계탕 등이 포함되는 ‘동우보감’ 브랜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주요 제품 현황

신선/냉동제품	친환경제품	스페셜제품	가공제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

■ 매출 비중

2020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매출은 제품과 상품, 기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은 전반적인 생산 제품이 포함되는 도계육과 배합사료 첨가제인 단미사료가 포함되며, 상품은 도계육, 토종닭, 오리 등이고, 기타 생계, 병아리 등이 포함된다[표 3].

표 3. 매출 현황(단위: 백만 원)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영업 전략

동사는 닭고기 원료육 유통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며, 해당 기업 및 기관을 통해 일반 소비자, 닭고기 체인점 및 단체급식소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영업을 위한 전략으로는 닭고기 시장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순발력 있는 시장 대응을 위해 국내 각 지역별 판매팀과 학교 급식팀, 대형마트 및 군납품을 위한 신유통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3].

그림 3. 영업 조직 구성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브랜드 컨셉 및 홍보 전략

동사는 바른 농장, 바른 생산, 바른 유통을 통해 식품 건본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른 생각 바른 닭고기, 착한 생각 착한 닭고기를 메시지로 담는 ‘바른 닭고기’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팜투테이블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으며, 발행 호차별 퀴즈 참여 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치킨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하여 수상 및 상금 제공, 모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장 담그기 나눔행사, 사랑의 밥상 나눔행사 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4].

표 4. 홍보 활동 예

팜투테이블 매거진	레시피 공모전	나눔행사활동
 팜투테이블 2018 Winter	 건강한 치킨레시피 공모전!	 사랑의 김장담그기

*출처: 동사 홈페이지

II. 시장 동향

닭고기 제품 다양화, 꾸준한 수요로 인한 안정적인 시장 예측

육계 산업은 육계 계열화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도축한 닭고기와 이의 부분육인 가금류 포장육 등이 포함된다. 관련 시장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닭고기를 이용한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과 꾸준한 수요로 안정적인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계 산업

육계란 닭을 사육하여 식용이나 그 밖의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부속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의 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육계 산업은 종계, 부화, 사육에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육계 계열화 업체에서 약 90% 생산하고 있다. 다만, 국내 닭고기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난립해 있으며, 포장유통 의무화 및 축산물 표시법의 발효로 대형 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5].

표 5. 육계 산업 특징

구분	특징
사육, 생산, 유통 계열화 사업	국내산 닭고기 91%, 오리고기 95%가 종계, 부화, 사육, 도계육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는 계열화 업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음. 계열화 업체 중 하림,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등 4대 업체가 대형화 및 집중화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시세 변동성은 높으나, 경기 민감도는 낮은 산업	다른 축산물 대비 생산주기(육계의 경우 부화 후 40일 전후에 도계과정을 거쳐 상품화)가 짧은 편으로 공급 과잉 및 과소가 반복되어 유통가격의 변동성이 높음. 저렴한 가격 및 다양한 소비층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사료 가격과 가축질병 관련 소비심리에 대한 민감도는 높음.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통닭 위주 소비 형태의 육계 시장이 닭고기의 부위별 부분육, 절단육, 부산물(닭발, 근위), 정육(순살고기) 제품 등의 급속한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증가 추세로 선진화됨으로써 미래 닭고기 시장의 전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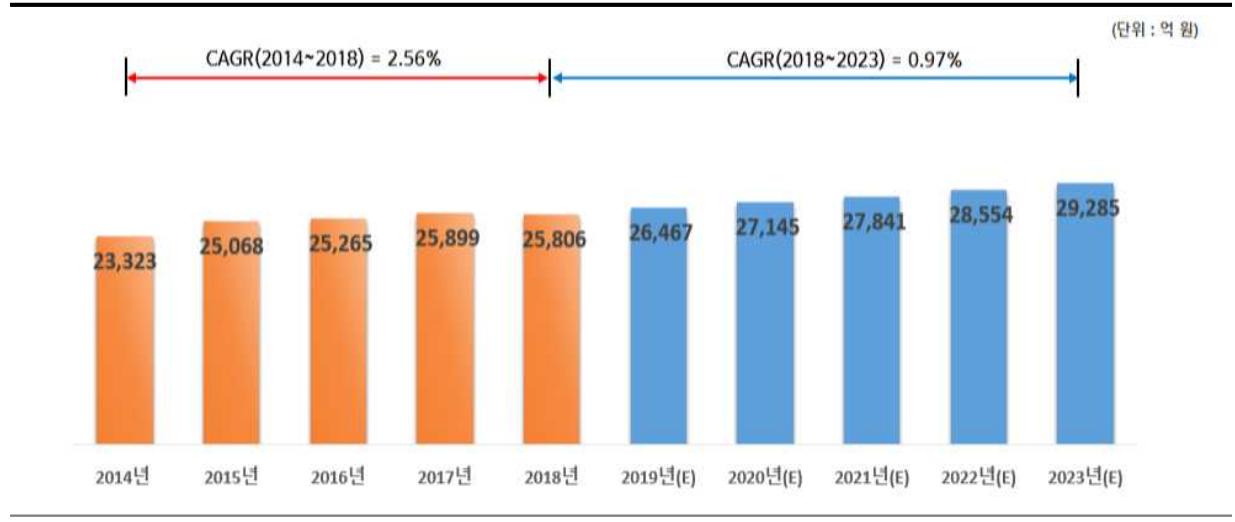
*출처: 닭고기 산업의 특성과 성장(미래한국, 2018) 외

▶▶ 닭고기 시장 정의 및 규모

닭고기는 ‘가금류 도축업(C10112)’에 해당하며, 닭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여 만든 고기를 의미한다. 전방산업은 닭고기 유통업체, 소비자 등이며, 후방산업은 양계업이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자료에 의하면 [그림 4]과 같이 국내 닭고기 출하 금액은 2014년 2조 3,323억 원에서 2018년 2조 5,806억 원으로 연평균 2.56%(CAGR) 성장하였고, 2023년에는 2조 9,28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참여 업체 수는 2014년 53개에서 2018년 70개로 증가하였고, 업체당 평균 출하 금액은 449억 원에서 369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4. 닭고기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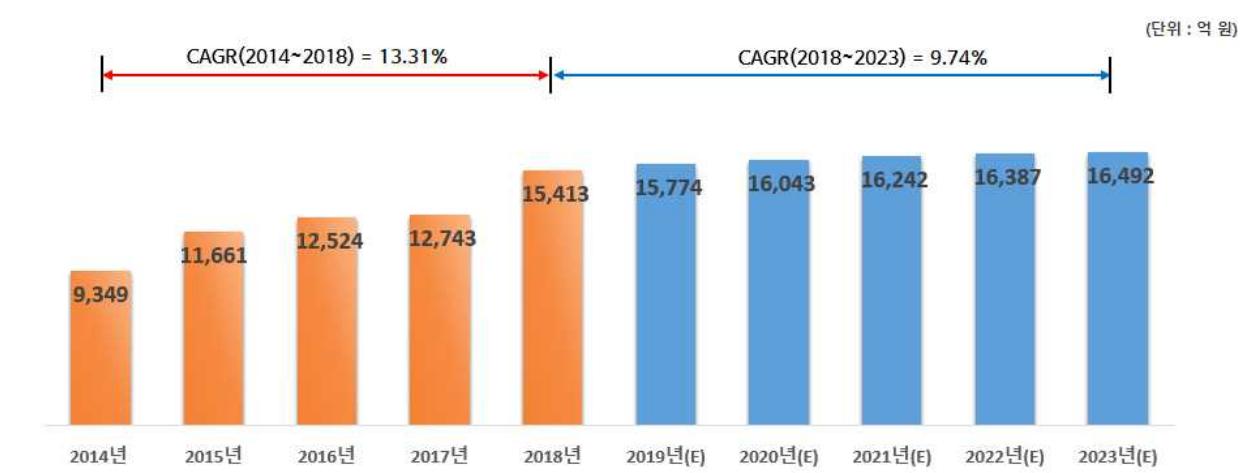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품목편(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가금류 포장육 시장 정의 및 규모

가금류 포장육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C10121)’에 해당하며,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고기, 알의 생산을 주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조류의 고기를 냉각시킨 후 부위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 정형, 진공 포장 또는 밀폐 포장한 것으로 정의한다. 전방 산업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등이며, 후방산업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산업계가 해당한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자료에 의하면 국내 가금류 포장육 출하 금액은 2014년 9,349억 원에서 2018년 1조 5,413억 원으로 연평균 13.31%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로 성장할 시 2023년에는 1조 6,49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5]. 시장 참여업체 수는 2014년 135개에서 2018년 210개로 증가하였고, 업체당 평균 출하 금액은 69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5. 가금류 포장육 시장규모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품목편(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경쟁업체 현황

닭고기, 가금류 포장육 등 육계 시장은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등이 주요 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 하림

1978년 전북 익산 황등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1986년 하림식품을 설립하면서 농장과 공장, 시장을 연결하는 ‘삼장통합’ 경영으로 육계 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코스닥 상장(2011년 05월) 기업이다. 국내 최초 육계 계열화를 완성하였고, 2014년 USDA에서 가금육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하림삼계탕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무항생제 및 동물복지 브랜드인 ‘자연실록’과 신선함을 극대화한 브랜드인 ‘프레쉬업(Fresh-Up)’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껌닭, 닭갈비, 칼국수 등 다양한 조리 목적으로 신선제품을 생산하며, 용가리치킨, 치킨너겟, 팝콘치킨, 삼계탕 등의 육류 가공품을 간편조리식품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 체리부로

1991년 설립되어 충북 진천 도계장을 준공하였고, 육계 계열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견 기업, 코스닥 상장(2017년 12월) 기업이다. 2003년 업계 최초 닭고기 등급제를 시행하였고, 품질등급 자동분류 시스템과 에어칠링,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화 시스템을 갖추었다. ‘코肯’, ‘백년백계’, ‘싱싱닭고기’, ‘체리오리’ 등의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닭고기뿐만 아니라 통오리, 오리 훈제 슬라이스 등 다양한 가금류 가공품을 판매한다.

▶▶ 마니커

1962년 개업한 천호부화장에서 1979년 육계품종 ‘마니커’ 개발, 이를 기반으로 1984년 동두천공장을 준공하고 마니커닭고기를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금류 가공처리업을 주요 사업분야로 영위하는 중견기업, 코스닥 상장(2002년 10월) 기업으로 계열화 사업을 통해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품군은 친환경제품, 신선육 냉장/냉동,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마니커’, ‘닭터의자연’ 등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한다. 닭가슴살 전문 유통을 위해 온라인몰 ‘진심닭컴’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산업 이슈 및 전망

▶▶ 생계 가격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육계관측월보(2020년 07월)에 의하면 육계 사육 분야는 7월 기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계 사육 마릿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계 비중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육계, 삼계, 토종닭 입식 감소로 육용계 사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도계 분야는 육계 및 삼계 입식 감소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나, 평년보다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황에 따라 생계유통가격 및 위탁생계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높으나,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유통가격은 도계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0% 내외 높으나, 공급량이 많아 평년보다 15.7%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위탁생계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 하반기 종계 입식이 늘어 성계 사육이 증가함에 따라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계 마릿수 또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8%, 8.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닭고기 수입 전망

리서치알음의 조사 등 자료에 의하면 최근 브라질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인 JBS SA의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육계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닭 가격 상승을 전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계 축산관측자료, 2020년 7월호)은 2020년 5월 닭고기 수입량(검사실적 기준)은 전년 동월보다 1.3% 감소한 9,954톤이었고, 6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11.480톤)보다 적은 10,800톤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당 기관 또한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7월 이후 수입량은 전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 선적일 증가 등으로 수입량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 전망

2020년 7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는 육계, 산계, 토종닭 입식이 줄어 전년 동월(1억 3,066만 마리) 대비 2.7% 감소한 1억 2,708만 마리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평년 1억 2,221만 마리 대비 4.0% 증가한 수준이며, 9월 육용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8,853만 마리)보다 1.5% 증가한 8,985만 마리, 12월은 전년(8,873만 마리)보다 1.9% 증가한 9,042만 마리로 예측된다. 한편, 7월 도계 마릿수는 육계 및 삼계 사육 감소로 전년 동월(1억 1,894만 마리) 대비 3.3% 감소한 1억 1,498만 마리였고, 이는 평년(1억 1,009만 마리)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7~11월 병아리 입식에 따른 8~12월 도계 마릿수는 [표 6]과 같으며, 전년 동기(4억 3,246만 마리) 대비 1.8% 증가한 4억 4,015만 마리이며, 이는 평년(4억 605만 마리) 대비 8.4% 증가한 수준이다.

표 6. 2020년 하반기 도계 마릿수 전망(단위: 만 마리, %)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9,536	8,692	8,422	8,393	9,012
2019년	9,747	7,968	8,600	8,449	8,482
평년	8,997	7,590	7,920	7,967	8,132
전년 대비	-2.2	8.6	-2.1	-0.7	6.2
평년 대비	6.0	14.0	6.3	5.3	10.8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계 축산관측 2020년 7월호,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육가공 업계 투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가정식 대체식품 시장은 2017년 2조 7,421억 원에서 2018년에는 약 3조 2,164억 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는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 보편화, 여가문화 확산, 쿠방 열풍 등으로 관련 시장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육가공 식품군과 완조리 형태 RTE(Ready To Eat) 또는 RTH(Ready To Heat) 타입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육가공 업체들은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 예로, 하림그룹은 전라북도 익산에 하림공장과 하림종합식품단지, 식품 가공 플랜트를 착공하여 2020년부터 단계적 완공 및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육가공 업계는 가정식 대체 식품 시장의 성장, 냉동 안주 시장 경쟁 등으로 B2B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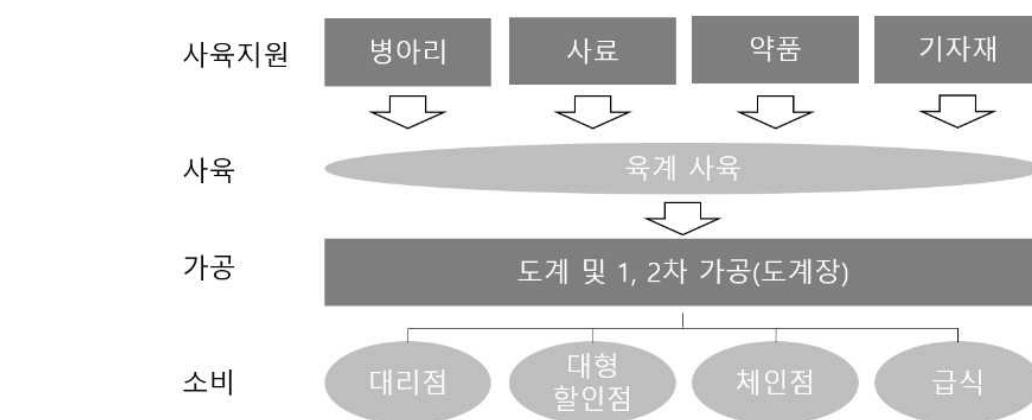
체계적인 계열회사 운영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공급 가능

동우팜투테이블은 제품 생산을 위한 전 공정에 대하여 자체 생산 또는 위탁계약을 통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공 설비에 대하여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닭의 생산 단계

닭은 육계 산업 구조에 따라 사육지원, 사육, 가공, 소비의 단계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도계 및 가공 단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업이 통합 경영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그림 6]. 육계는 부화 후 40일 이내에 상품화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 중 자본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품목으로 구분된다. 또한, 생산비가 다른 축종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그림 6. 육계 산업 구조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일보 가공(2017),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사육 지원/사육 단계

우리나라에서는 토종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수입해 온 원종계(GPS, Grand Parent Stock)를 사육한다. 원종계를 교배해 태어난 다음 세대의 닭이 종계(PS, Parents)이며, 종계가 산란계로서 알을 낳는다. 종계농장에서 만들어진 달걀은 부화장으로 보내지며, 부화장에서 달걀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육계 사육농가에 공급하는데, 이 병아리가 우리가 섭취하는 육계이다. 원종계 육성부터 완제품의 유통까지 50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고 수요예측을 해야 한다. 육계 기업은 수급조절을 위해 농가와 대개 연간(혹은 6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며, 육계 기업은 계약 체결한 농가에 지속적으로 사육 기술지도, 질병 및 등급 등을 관리한다(CLO 기사 참고, 김정현, 2017). 국내 원종계 시장은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주요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삼화원종의 시장점유율



이 47.8%이고,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순이다(육도삼략 365 기사, 2020.06).

▶▶ 가공 단계

도계는 생닭을 해체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사육 단계로부터 넘어온 닭은 본격적인 도계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1차적으로 살균 과정을 거치고 4~10시간 계류(절식)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굳어진 닭의 상태를 이완시킨다. 계류는 수조 전기 기절기 방식을 사용하여 기절시키며, 이 후 2~3분간 피를 빼내는 방혈 과정을 수행한다. 피가 전부 빠지면 탕침과 탈모, 내장적출 및 냉각(칠링), 중량선별, 도체 포장, 냉장·냉동, 통닭·부분육 가공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내장적출 후 닭의 내외부를 세척하면 닭의 온도가 40°C까지 상승하는데, 냉각 공정으로 4°C까지 낮추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공기냉각과 냉수냉각 방식이 있는데, 냉수냉각은 도체의 수분흡수로 인한 수율증가, 높은 생산성 및 낮은 제조원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수분흡수나 포장 후 교차오염이 심해 유통기한이 짧은 단점이 있다. 공기냉각은 장시간 선도를 유지할 수 있고 교차오염도 최소화되어 위생적이고 맛이 좋으나, 수율이 낮고 높은 투자비, 낮은 생산성 및 높은 제조원가 등이 단점이다.

그림 7. 닭고기 부분육 예



*출처: 국내 유통 닭고기의 부분육별 화학적 특성(2017), 농사로

도축된 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절단한 분할육과 추가 가공육을 생산하는 1,2차 가공 공정을 수행한다. [그림 7]과 같이 가금육을 각 부위별로 나누고 뼈와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 각 부위별로 생산된 육을 용도에 따라 세절하는 작업, 부위에 상관 없이 전체를 절단하는 절단육가공, 부위별로 생산된 부분육을 속포장(내포장) 및 겉포장(박스 및 벌크)하는 공정이다.



▶▶ 소비 단계

가공된 계육은 대리점, 대형 할인점, 체인점, 급식 등 사용처의 목적에 맞게 포장되며, 자체 물류 시스템 또는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이송, 공급된다.

■ 육계 산업 구조를 통합 경영하는 기업

동사는 종계, 부화, 사육, 도계, 가공, 판매로 이루어지는 닭의 생산 단계[표 7,9]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탁농가와 계열회사 등을 활용하는 등 육계 산업 구조를 통합 경영하고 있다. 종계는 48곳의 직영, 위탁 종계장에서 연간 1억 7천만 개의 종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첨단 자동 설비 시스템과 철저한 방역 시설을 갖추고 있다. 종계가 낳은 알은 부화장에서 3주 후 병아리로 태어나는데, 부화장은 종란이 잘 발육되고 부화될 수 있도록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간 1억 2천만 개(주 224만 개)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다 [표8]. 사육은 동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위탁 농가 180곳에서 연간 8천만 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위생관리와 자동 환기, 급수, 차량 소독 등 과학적인 시스템을 적용하여 All-In All-Out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다. 병아리 이력제를 통해 종계, 부화, 사육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육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7. 닭고기 생산과정-1

종계(방역시설)	부화	사육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재구성

표 8. 동사 종계 생산 및 부화장

구분	사업장명	주소
종계장	나포종계장	전북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374
	재경종계장	전북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49
	황산종계장	전북 김제시 황산면 남산로 112
	백산종계장	전북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310-3
부화장	개정부화장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우산길 65-13(HACCP 인증, 2015.12.09.)
	나포부화장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라로 534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재구성



도계장에서는 1일 평균 26만 마리의 도계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2020년 1분기 기준 1일 최대 32만 마리 도계 역량 보유), 네덜란드 STORK사의 전자동 도계 설비를 도입하여 반입, 내장적출, 포장까지 전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찬 공기로 냉각하는 에어칠링 시스템으로 신선함을 유지하며, 자동내장적출 분리시스템으로 내장의 분비물,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할 수 있다. HACCP 기준에 따른 원료육을 선정하여 부위별로 가공하며, 도계 즉시 뼈를 제거하여 영하 20°C에서 15분간 표면 냉각하여 최대 10일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One day System(당일 생산, 당일 출하)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 원칙에 따라 제품을 포장하여 공급하며, 이마트, 교촌치킨, 비비큐 등 200여 개 판매처로 공급하고 있다.

표 9. 닭고기 생산과정-2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재구성

■ 도계실적 기반 육계 산업 선도 기업

동사의 2020년 상반기 도계 실적은 45.15백만 마리로, 1위 실적을 나타낸 하림(95.10백만 수)과의 차이는 크나, 2위인 올풀(45.26백만 마리)과 적은 차이로 3위를 차지하였다. 계열사인 참프레와의 실적을 포함하면 업계 내 2위를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동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 10].

표 10. 국내 업체별 도계실적(단위: 백만 마리, %)

업체명	2020년 상반기		2019년		2018년	
	도계 수	점유율	도계 수	점유율	도계 수	점유율
하림	95.10	18.1	197.6	18.6	186.1	18.5
동우팜투테이블	45.15	8.6	87.6	8.3	82.4	8.2
참프레	41.57	7.9	85.3	8.1	83.4	8.3
올풀	45.26	8.6	90.8	8.6	85.0	8.5
체리부로	39.66	7.5	84.9	8.0	77.2	7.7
마니커	32.85	6.2	95.5	9.0	92.2	9.2
사조	27.49	5.2	51.7	4.9	45.9	4.6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실적(2020) 및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역량 구축

▶▶ 인증현황

동사는 나포부화장, 나포종계장, 개정부화장, 재경종계장, 백산종계장, 황산종계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화장치와 절단, 가공장치 등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와 관련한 공인 인증 실적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11].

표 11. 동사 인증

구분	적용 분야	인증일
기업부설연구소	가금과학기술연구소	2020.06.02
HACCP	가축사육업(개정부화장)	2015.12.09
무항생제축산물	육계(식육)	2010.03.05
HACCP	식육포장처리업	2005.07.11

*출처: 인증별 사이트 검색, NICE평가정보 재구성

▶▶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확장을 위한 협력 기관 확보

동사는 실질경영주 및 동사가 지분 참여한 계열사를 다수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군산도시가스, 참프레, 우농, 다농, 가농 등이 있다. 영위 사업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계열사는 참프레로, 육계 가공을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기업이다. 신선육을 매입하여 염지, 배합에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매출은 계육 가공 및 배합사료로 발생한다. 우농, 다농, 가농은 양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육계병아리를 매입하여 임부화 등을 통해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는 군산시 · 부안군 · 임실군 · 진안군 전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 실질경영주인 김동수가 최대주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을 고려할 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사는 [표 12]와 같이 제품공급, 위탁사육, 사료공급 등에 대한 계약거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주요 계약

계약명	계약처	계약체결 및 기간	계약주요내용
제품공급약정서	교촌 외	연간계약	제품판매 약정
종계위탁사육계약	사육농가 외	연간계약	종계사육 약정
육, 삼계위탁사육계약	사육농가 외	연간계약	육삼계사육 약정
사료공급계약	참프레	연간계약	사료공급 약정
제품운송계약	한진 외	연간계약	제품배송 용역

*출처: 1분기 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 SWOT 분석

그림 8. 동사 SWOT 분석



▶ (Strengths Point) 육계 수직계열화 역량 및 자동화 시스템 확보로 안정적 품질의 제품 공급

정부의 축산물유통구조 개혁정책에 따라 육계의 계열화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닭고기 총생산량 중 육계의 계열화 업체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또한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동사 또한 수직계열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화 역량을 갖추고 매출이 시현되고 있다. 또한, 수직계열화로 인해 사육부터 제품화까지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자동화 시스템 적용으로 생산 효율 증대와 원가 절감 등의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 (Opportunities Point) 닭고기 활용한 제품 소비 증대로 품목 다각화 시 추가 매출 시현 가능

삼복(초복, 중복, 말복) 시 삼계탕을 섭취하는 문화로 인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몸매관리 및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됨에 따라 연중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제품을 선호하는 식문화 패턴의 변화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 (Weaknesses Point) 공정 개선 및 원료,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적 부재

동사는 육계 계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산 및 영업 역량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계 사육 및 개발, 원료육의 저장과 숙성, 가공 방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개발 성과의 지식재산권 연계를 통해 기술장벽 구축이 필요하다.

▶ (Threats Point) 질병 확산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닭고기 산업은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닭고기 소비가 침체 되고, 소비 감소 및 생계 시세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의 위험이 있다. 또한, 수입제품이 급증하게 되면 외식업체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저렴한 수입제품의 사용이 증대될 수 있으며, 타 업체의 수익 다각화나 새로운 영업 방법의 출현 등이 동사의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IV. 재무분석

매출 성장세 지속 및 시장점유율 상승

관계기업 (주)참프레와 함께 동반 매출 성장이 지속하였고 도계검사 수량 기준 시장점유율도 상승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매출액은 2018년 2,502억 원(+8.4% YoY), 2019년 2,706억 원(+8.2% YoY)을 시현하였다.

■ 시장점유율 유지 및 매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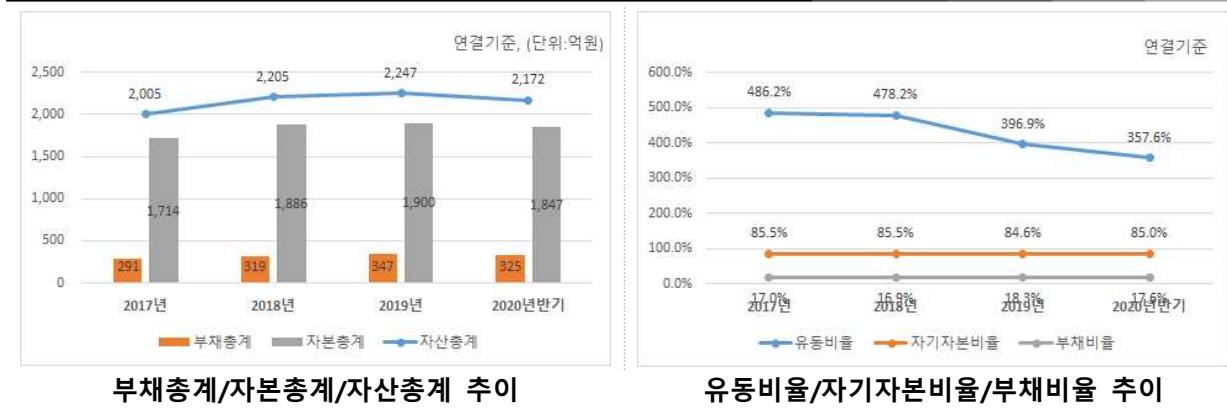
동사는 관계기업인 (주)참프레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검역본부 도계검사 실적 기준 도계수 점유율이 2018년 16.5%, 2019년 16.3%, 2020년 상반기 16.5%를 기록하면서 가축(육계) 계열화 회사로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매출 2,706억원 중에서 품목별 비중은 도계육 제품이 전년대비 매출이 5.9% 증가하면서 82.9%(18년 84.6%), 단미사료(배합사료 첨가제) 제품 2.4%(18년 2.4%), 도계육, 토종닭, 오리 등 상품 2.9%(18년 2.7%), 기타 생계, 병아리 등 11.8%(18년 10.3%)이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2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분기보고서(2020)

그림 10.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 2019년 수익성 하락

동사의 매출원가율은 2017년 86.3%, 2018년 87.0%, 2019년 92.0%로 주요 제품의 시세가 하락하였으나 사료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원가율이 상승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7년 7.3%, 2018년 6.8%, 2019년 1.6%를 기록하여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은 2017년 168억원, 2018년 170억원, 2019년 43억원을 기록하여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 감소가 지속되었다. 한편, 관계기업인 (주)참프레 또한 19년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영업손익은 적자전환하였다.

■ 2020년 상반기 전년 매출 규모 유지 및 수익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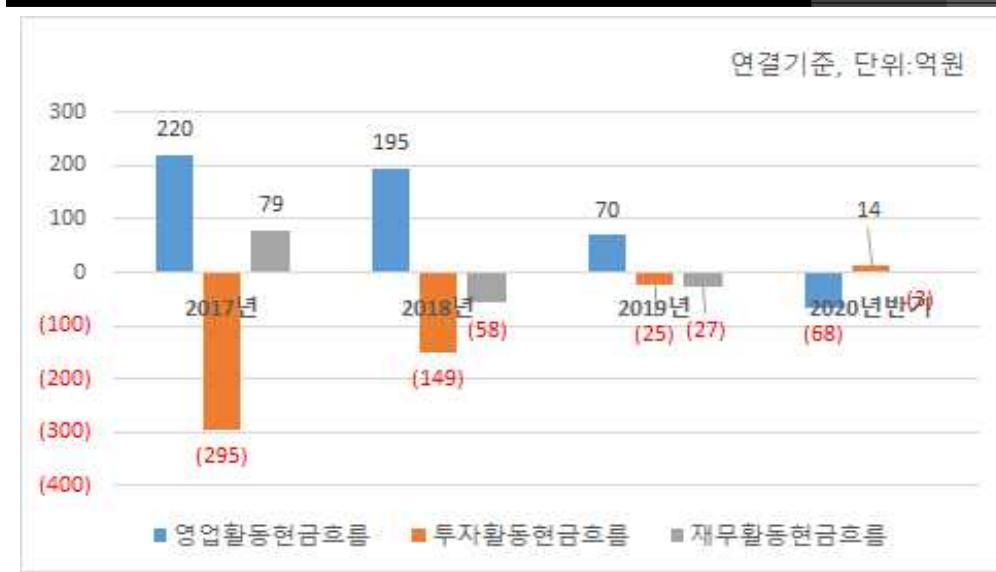
2020년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348억원에서 소폭 증가한 1,349억원을 기록하여 매출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원가율 상승과 인건비 및 운반비 등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영업손실 66.6억원을 기록하면서 매출액영업이익률 -4.9%, 매출액순이익률 -3.9%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

한편, 유동비율 357.6%, 부채비율 17.6%, 자기자본비율 85.0%, 차입금의존도 1.3% 등으로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을 우량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영업활동현금흐름 저하되었으나 유동성 무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220.4억원, 2018년 195.4억원, 2019년 69.9억원을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19년 유형자산 취득 및 종속기업 투자 등의 투자활동과 배당금 지급 및 차입금 부분 상환 등의 재무활동 후 현금성자산은 연초 143.9억원 대비 17.7억원 증가한 161.6억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유동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2020년 반기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7.9억원이었고, 반기말 현금성자산은 전년말 대비 56.6억원 감소한 105.1억원이었다.

그림 11.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반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내실기반 강화 및 시장 환경에 따른 성장 기대

동우팜투테이블은 생산공장 추가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가금류 가공처리를 통한 수익 증대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헌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량 변동에 따른 동사 물량 공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

동사는 생산능력 한계로 인한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공장 구축이라는 투자를 결정하였고, 전라북도와 고창군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창군 일반산업단지 177,423m² (53,671평)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공장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 및 인허가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악취 저감을 위해 최첨단 친환경 시설을 도입, 운영 계획이며, 650명의 직접고용 효과로 전라북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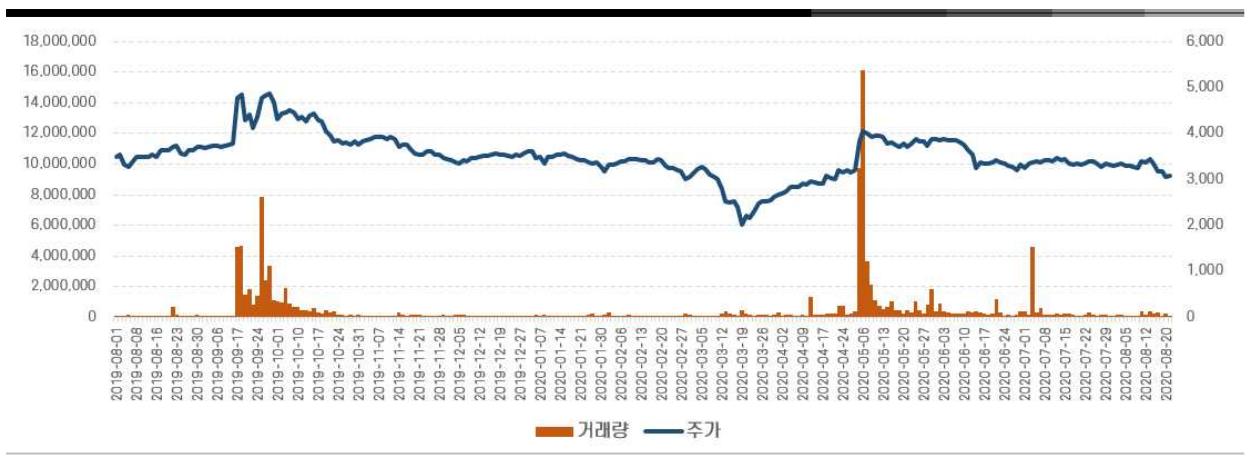
■ 코로나19 등 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수혜 기대

국내 닭고기 유통량 중 수입량은 약 15%이며, 이 중 브라질 제품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브라질의 최대 육가공업체인 JBS SA 공장이 셧다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주요 생산국에서 공급과 선적 지연 등의 문제 발생으로 국내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 4월 및 5월 각각 10.7%, 1.3% 감소). 이에, 닭고기의 가격 성장 및 국내 제품의 소비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사의 공급 물량 증대로 인한 추가 매출 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포장 단위의 제품 개발과 HMR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자체 브랜드로 보다 더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 및 상용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0.08.)